



남도문화가 풍요로운 영암(靈岩)

강 육

자유기고가

영암(靈岩)의 얼굴은 월출산이다. 기름진 평야가 넉넉하게 이어진 남도 들판에서 낮설게 우뚝 선 월출산은 809m의 천황봉을 최고봉으로 구정봉, 사자봉 등 수많은 봉우리들이 기암절벽을 병풍처럼 늘어뜨려 수려한 경관을 만든다. “남쪽 고을의 한 그림 가운데 산이 있으니 달은 청천에 뜨지 않고 이 산에 오르더라.” 조선시대에 김시습은 월출산에 달이 떠오르는 광경을 보고 이렇게 읊었다. 굽이굽이 예리하면서도 장대한 계곡과 능선 사이로 어슴푸레 떠오르는 처연한 달의 아름다움은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후세 사람들에게 의해 변함없이 칭송되고 있다.

월출산은 소백산맥이 서남쪽으로 내리달려 오다가 서남 해안에 이르러 방파제 구실을 맡은 듯이 우뚝 멈추면서 빛은 명산이다. 「택리지」에 쓰여 있는 대로 월출산에는 백인지 천인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돌 봉우리들이 높고 낮고 굽다랗고 가느다

랗게 뽕족뽕족 둘러서 있어 작은 금강산이라고 불릴 만큼 풍광이 빼어나다. 월출산의 한복판에 솟아있는 738m의 구정봉에 오르면 마치 창과 칼을 들고 늘어선 듯한 기암괴석의 모습에 그만 취하고 만다. 그 구정봉 아래에는 움직이는 돌이 있는데 여기에 갖가지 이야기가 얹혀 전해 온다. 즉 「동국여지승람」에도 신령스러운 바위라는 뜻을 지닌 ‘영암’이라는 지명이 바로 이 돌 때문에 생겼다고 적혀 있다.

전라남도 서남부에 위치한 영암군은 갖가지 전설과 예스런 풍습을 간직하고 있는 고장이다. 목포시를 마주 바라보며 영산강의 들목에 놓인 영암군은 들쭉날쭉한 해안선이 복잡하고 앞 바다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대형선박이 많아진 오늘날에는 항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으나, 모든 물자의 조달을 뱃길에 기댔던 옛날에는 제법 큰 고을에 들었다.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줄곧 중국

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그 언저리와 일본에 전하는 국제 항구로서의 구실을 톡톡히 해냈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최지몽(崔知夢)과 도선 등의 활동으로 고려 초기 영암의 지위는 급속히 상승되어 성종 14년(995) 남주로 승격되었고 안남도호부가 설치되었다. 1018년 안남도호부가 전주로 옮겨감으로써 다시 영암군으로 바뀌었는데 이 무렵의 영암은 남부의 황원군, 도강군, 곤미현, 해남현, 죽산현 등을 영속하는 호남 서남부의 행정 중심지였다.

한반도에서 최초로 벼씨가 뿌려졌던 곳은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내륙 지방과 해안지방을 잇는 교통로의 구실을 해왔던 영산강 하류 지역이고, 거기에서도 영산강의 삼각주 평야에 들어앉은 영암 땅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영암군의 삼호면, 서호면, 군서면, 도포면, 시종면 일대와 영산강 하구지역에는 고인돌과 옹관 무덤이 무리지어 있고 선사시대 말기로 보이는 갖가지 유물들이 출토되어 이곳이 선사시대부터 농사를 짓던 곳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암군에는 벼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성했던 줄다리기, 고싸움놀이, 강강술래 같은 민속놀이가 전해온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이곳 사람들이 “농업에 전적으로 힘쓰매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꾸밈이 없다”고 쓰여 있는데 그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온다.

영암이 낳은 큰 인물은 백제의 유학자인 왕 인과 풍수지리설로 이 땅에 술한 말쟁이를 불러일으키게 한 통일 신라시대의 중

도선이 있다. 왕 인의 이야기는 이 지방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왕 인이 「논어」와 「천자문」을 갖고 일본으로 건너가 학문을 전했고, 또 일본 왕실의 스승이 되어 뒷날 일본의 「아스카 문화」와 「나라 문화」를 꽃피우는 데에 주춧돌을 놓았던 이임을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취를 일본의 역사책에서는 자세히 읽을 수가 있으나 이 나라 역사책에서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다.

영암군에 사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왕 인은 월출산의 한 봉우리인 주지봉 기슭에 있는 군서면 구림리 성기동에서 태어났다. 월출산 곳곳에는 그가 학문을 닦았던 곳이 널려있다. 주지봉 아래로 흐르는 계곡인 성천에서 목욕을 하면 왕 인과 같은 큰 인물을 낳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또 삼월 삼짇날이면 왕 인 박사를 기리는 ‘산유불놀이’를 오래 전부터 벌리고 있다. 이 잔치에서는 왕 인이 일본으로 떠난 뒤에 그의 제자가 그를 기리며 지었다고 하는 「억 왕 인 고사」라는 한시를 읊는다.

월출산 죽순봉 일대에는 왕 인과 그의 제자들이 공부를 했다는 문산재, 양산재 같은 집터와 왕 인이 책을 보관해 두고 공부했다는 천연동굴인 책굴이 있고, 또 그가 일본으로 떠날 때에 배를 탔던 곳이라고 하는 상대포와 그 뒤에 그의 제자들이 스승을 그리워하며 왕 인의 모습을 돌에 새겨 놓은 석인상 같은 백제의 유물들이 산재해 있다. 한편 남도 문화관광의 중심지답게 영암에서는 매년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초순 전국 5대축제 중의 하나로 지정된 ‘왕

인 문화축제'가 열린다.

우리나라 풍수지리학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도선 국사는 영암 출신으로 수많은 설화를 간직한 사람이다. 전해 오는 말에 따르면 영암의 '구림(鳩林)'이라는 마을 이름도 도선과 관계가 있다. 곧 통일 신라 시대에 최씨의 딸이 오이를 먹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 몰래 대밭에 갖다 버렸더니, 이상하게도 비둘기가 그 아이를 보호하여 기르므로 다시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길렀는데 그 아이가 바로 도선이었고, 그 때문에 그 마을 이름을 '구림'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월출산 서남쪽 기슭에는 신라시대에 중도선이 지었다고 전해오는 천년 사찰 도갑사(道岬寺)가 있다. 고즈넉한 멋이 짙게 풍기는 이 절은 「동국여지승람」에는 “도선이 일찍이 머물렀던 곳”이라고만 쓰여 있다. 누가 언제 도갑사를 지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조선 세조 때에 이 고을의 중인 수미가 본디의 절보다 크게 뜯어 고쳤다고 전하며 한때는 규모가 996칸에 이르고 승려가 900명에 달했다고 한다. 지금도 대웅전 주변 천여 평에는 주춧돌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 도갑사의 옛 영화를 엿볼 수 있다.

도갑사로 오르는 길은 10~50년생 벚나무가 울창해 운치를 더한다. 일주문을 지나 100m 가량 가면 길 왼쪽에 해탈문이 있다. 해탈문은 도갑사 경내에서 가장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귀한 건물을 거의 다 불태워 버렸던 임진왜란에도 불길 이 닿지 않았다. 건축 양식이 매우 독특하

여 주목을 받는 해탈문은 국보 제50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 이 절에 붙은 암자 미륵암에는 보물 제89호로 지정된 여래 돌 좌상이 다정스레 모셔져 있다.

도갑사 경내에는 고려시대 오층석탑이 보이고, 마당 귀퉁이에는 수미왕사비가 있다. 이 비에는 수미왕사의 활동과 내력 등이 적혀 있는데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3m가 넘는 이 비석은 섬세하고 화사하게 조각돼 있다. 조선 중기에 세워졌으면서도 그 양식은 고려 전기의 유행을 따라서 매우 특이하다. 이 절의 뒤쪽에는 조선 인조 때에 세웠다고 하는 '월출산 도갑사 도선수미비'가 있다. 높이 4.8 미터인 돌로 만든 이 비석은 여의주를 물고 고개를 쳐든 거북 받침 위에 비를 세운 것인데, 거기에 세운 글씨와 조각이 매우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갑사에서 갈대밭을 지나 월출산 정상으로 오르면 국보 제144호인 벼랑새김부처를 만날 수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 이곳 백제 유민들이 구정봉의 아스라한 바위벽에 기어올라가 쪼아 새겼다고 한다. 석굴암에 있는 부처의 두 곱썸 되는 높이 7m, 너비 2.6m인 이 거대한 부처는 구성비례가 알맞아서 안정감과 장중한 인상을 준다. 해발 600미터에 가까운 산허리 바위 위에 어찌면 이렇게 중후하고 세밀한 조각을 새겼는지 새삼 그들의 불심이 놀랍기만 하다. 국보나 보물 같은 문화재 말고도 월출산에는 갖가지 전설을 지닌 바위와 봉우리가 수없이 많아 옛 조상의 숨결을 느끼게 해 준다.

영암은 갖가지 해산물도 풍부하게 난다. 차지기로 이름난 개펄이 살림의 큰 밑천이 되었다. 덕분에 송어알, 어란, 낙지요리, 짬뽕이국이 영암군의 명물로 떠올랐다.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와 신학리 일대의 기름진 개펄에서 잡히는 송어는 특히 맛이 뛰어나다고 하여 참송어로 따로 불린다. 여기서 잡히는 송어로, 아랫배가 축 처지도록 묵직하게 알을 실은 놈을 골라서 그 알을 꺼내어 손질하여 만든 것이 그 유명한 영암 어란이다. ‘잔다잔다한’ 어란은 고급 술안주로 쓰이는데 단백질, 무기질, 지방질이 풍부해 어란을 곁들여서 술을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골이 빠는 일이 없다고 한다. 어란은 예로부터 궁중에 진상품으로 올려졌을 만큼 귀하고 고급스러운 것이어서 만들기가 바쁘게 서울 등 도시로 팔려나간다.

해남만을 끼고 있는 미암면 일대의 개펄에서 잡히는 세발 낙지 곧 발이 가느다란 낙지나, 월출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깨끗한 물과 서해 바닷물이 합쳐지는 해안 일대에서 잡히는 짬뽕이는 아직까지 영암군의 웬만한 음식점에서 맛을 볼 수 있다. 눈이 툭 불거져 나오고 거무튀튀하게 생긴 짬뽕이는 사람이 다가가면 금세 개펄의 구

멍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구멍을 쫓으면 재빨리 땅 밑에 뚫어 놓은 다른 구멍으로 새어나가 버린다. 그 때문에 “짬뽕이 구멍은 열두 구멍”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짬뽕이는 껍질을 벗겨내고 회를 쳐서 먹기도 하고, 소금을 발라 구워먹기도 하나 갖은 양념을 하여 미꾸라지국 곧 추어탕처럼 끓여먹는 것이 일품이다.

영암군을 이야기하면서 이 지방의 특산물인 ‘참빗’을 빼놓을 수 없다. 어란과 함께 궁중 진상품으로 올린 영암 참빗은 빗살이 고르고 부드러울 뿐만이 아니라 윤기가 자르르 돌고 쓰면 쓸수록 감촉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영암 참빗이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은 월출산에 자란 참대의 껍질층이 두꺼워 빗을 만들기에 좋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랜 세월 동안 참빗을 만들어 왔던 무형의 재주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영암읍 망호리의 몇몇 집에서 거의가 옛날 방법대로 참빗을 만들고 있다. 다만 빗살에 물을 들이는 방법이 본디는 사람의 오줌으로 노르스름하게 물을 들였으나 요즘에는 갈색 물감을 풀어서 물을 들인다. ☹

